

## 伊洛淵源錄跋\*

논어가 있으므로 공자·顔子の 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淵源錄이 있으므로 周子(周敦頤), 程子の 학통이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宋나라가 강남으로 옮긴 이래로<sup>2)</sup> 도학이 왕성하게 증흥한 것은 伊洛<sup>3)</sup>의 자취를 따라 연원을 개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언행록에 실린 바는 겨우 朱·張<sup>4)</sup> 등 몇 선생에 그쳤을 따름이요, 나머지 여러 인사가 彬彬한데도 모두 기록되어 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天台<sup>5)</sup>의 謝公이 淵源續錄을 지은 까닭이다.<sup>6)</sup>

두 연원록 가운데 元錄(주희의 이락연원록)은 이미 우리 나라에 퍼져 있고 또 다행히 南原에서 간행한 本이 있는데, 續錄은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책이 있는 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전에 江陵 金添慶<sup>7)</sup>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3권(1996)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伊洛淵源錄 : 朱熹가 지은 14권의 책. 周敦頤와 程顥, 程頤 및 그 제자 46인의 언행을 기록하여, 그 학문의 연원을 밝혔다. ‘伊洛’은 伊川과 洛陽이니, 두 程子가 살던 곳이다.)

2) 宋나라는 1126년 金の 침입으로 수도 開封과 북쪽 땅을 잃고, 淮水 남쪽 臨安(지금의 杭州)을 수도로 하여 1127년에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세우니 이것을 南宋이라 부른다.

3) 程子와 그 문인들의 학문적 활동, 또는 그 학파를 가리킴.

4) 朱·張 : 朱熹와 張載, 장재의 호는 橫渠.

5) 天台는 지금의 浙江省 동쪽의 天台市 일대를 말한다. 역사상 이 곳에는 台州가 있어 그 밑에 臨海, 黃巖, 天台, 仙居, 寧海, 太平의 여러 현을 관할하였다. 이 이름은 천태산에서 났다.

6) 謝公은 明의 유학자 謝鐸을 말한다. 자는 鳴治로, 太平縣 사람이기 때문에 널리 보아 天台 곧 台州 사람이 된다.

淵源續錄은 사탁이 지은 伊洛淵源續錄 6권을 말한다. 朱熹가 지은 이락연원록의 속편으로 주희 등 21인의 학문 행적을 담고 있다.

7) 金添慶은 자가 文吉, 호가 漳洲, 본관이 江陵으로 판서를 지내고 시호는 肅問이다.

이 燕京(북경)의 서점에서 얻어 왔는데 佐郎 洪仁慶이 빌려서 滉에게 보내 왔었다. 그런데 泗川 龜巖 李楨<sup>8)</sup>이 東都(경주)에 府尹으로 나와 있으면서 여러 벗의 뜻을 받아, 내게와 그 책을 빌려 장차 간행하겠다고 하면서 책의 오류를 교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滉은 사양할 수가 없어, 분명히 오류인 것만 대강 바로잡고 의심나는 것은 그대로 두었다. 구암은 속록을 원록과 같이 간행하지 않으면 마치 물의 하류만 있고 원류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에 兩錄을 통틀어 한 帙로 만들고 監司 南宮忱<sup>9)</sup>에게 고하여 여러 고을에 나누어 판을 새기게 하였으니, 이 도[斯道]의 전통이 앞뒤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 책에 의하여 斯道の 원류를 파악하고 마음에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 이 학문[斯道]에 이바지하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좋은 혜택을 입히는 바가 그 얼마이겠는가!

그런데 주자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주고받아 덕을 이룬 통달한 인재의 무리가 그렇게도 많은데 謝公은 단지 몇몇 사람들을 뽑는 데 그쳤고 그의 의도가 마치 天台의 몇몇 분에게 중점을 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의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宋潛溪<sup>10)</sup>의 말한 바를 보니, “우리 文公(주자의 시호)이 伊洛의 정통을 이어 도를 전하고 가르침을 준 자가 大江(양자강)의 남쪽에는 거의 두루 퍼졌으나 천태가 가장 盛하였다”하였고, 그가 칭찬한 杜氏, 趙氏<sup>11)</sup> 등 여러 사람은 다 사공이 <속록에> 뽑아 실은 바이니, 천태를 도학이 성한 곳으로 보는 것은 역시 천하의 공론이다. 만약 사공이 인물을 取舍하는 데 지역적 편견에 의해 私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공에 대한 대접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닐까? 독자들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嘉靖 임술년(명종 17, 1562) 3월 기유일 眞城 李滉은 삼가 跋한다.

8) 퇴계의 문인. 자는 剛而. 性理遺編 등의 편술이 있다.

9) 명종조 문신으로 誠仲. 여러 도의 감사(관찰사)도 거쳤다.

10) 중국 元末·明初의 성리학자 宋濂. 자는 景濂.

11) 杜燾(자는 良仲, 호는 南湖)과 趙士淵(자는 幾道, 호는 訥齋). 모두 台州(곧 천태) 黃巖縣 사람.